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월 11일 설비건설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임 이사장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5년 전임이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3월 11일 설비건설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임 이사장을 초청하여 조합의 어제를 되돌아보고 미래청사진을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토대를 만들고 건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힘이 되어 주신 전임 이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현재 조합이 직면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 역대 이사장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석 이사장은 또한 “조합의 내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전임이사장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조합, 미래가 기대되는 조합을 꼭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2대 박원석 이사장, 3대 정임천 이사장, 4·5대 이찬재 이사장, 6·7대 이영식 이사장 참석했다.

참석한 전임 이사장은 조합의 돌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감회를 밝히고, 조합의 미래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찬재, 정임천, 현이사장 김기석, 박원석, 이영식, 뒷줄 왼쪽부터 임규진 감사실장, 신동철 기획조정실장, 하영진 기획상무이사, 정도현 총무부장, 우종덕 리스크관리 부장, 안장성 업무부장

2015년 경영진 지점현장 청취경영 실시




김기석 이사장이 업무현장을 직접 점검(광주·호남지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지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친절서비스 실천 정도 및 사무실환경 등 근무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직원들의 근무 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경영진의 지점 현장청취경영”을 실시하고, 이사장이 일일 명예지점장이 되어 현장경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지점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과 현장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김기석 이사장은 “조합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현실을 직접 체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경영진과 일선 현장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고객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조합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 청취(광주·호남지점)